

‘자기 마음=부처’ 입을 확실히 믿자

10. 마음 밖에 다른 부처가 없다.

배후가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묻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진짜 뼈저리게 이 문제를 붙들고 밤낮으로 씨름하는 사람한테는, 선지식이 방·할만 해주어도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다. 안목을 갖춘 분이라면 이때를 당해 묻는 이를 향해 단도직입으로 한 마디 한다든지, 돌아앉는다든지, 손가락을 세운다든지, 때려준다든지, 별의별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기원(機緣)이 되는 것이다. 마치 달걀의 안에서 병아리가 충분히 부화되어서 나오려고 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어미닭은 밖에서 그에 대응하여 같이 쪼아줄 때 껍질이 탁 깨어지면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과 같다. 이것을 ‘졸탁동시’라고 한다.

황벽선사에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부처다. 부처는 곧 마음이니, 마음과 부처가 서로 다르지 않다. 그래서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는 것이다. 마음을 떠나서는 따로 부처가 없다.”

배후처럼 자기 마음을 이미 한 번 밝혀본 사람도 스승에게 본인의 입장을 확고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스승은 ‘마음이 곧 부처다.’고 바로 일러준다. 마조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무엇인가?’ 하고 되물어주기도 했다.

배후가 물었다.
“만약 자신의 마음이 부처라 한다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셔서 어떻게 그것을 전해 주셨습니까?”

자기 마음이 곧 부처임을 확실히 믿지 못하면, 따로 무엇이 있어 전해 주고받는다 오해하기 쉽다. ‘조사서래의’는 곧 일심일 뿐, 달리 다른 법이 없다.

선사에서 말씀하셨다.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셔서 오직 마음이 부처임을 전했을 뿐이다. 그대의 마음이 본래 부처임을 바로 가르쳐 주신 것이며,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조사라고 한다.

이심전심이라고 하지만, 실로 전해준 것도 없고 전해 받은 것도 없다. 단지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했다는 말이다. 다만 이런 말을 이해에 그치지 말고, 자기도 직접 맛을 봐서 확인해야 한다. 배후로서는 알기는 다 아는데, 소화가 안 되니까 답답한 것이다. 답답하니까 같은 말을 묻고 또 묻고 한다. 사실 스스로 확실하지 않다면, 배후처럼 자꾸 부닥쳐야 한다. 이해한 마음 가지고는 스스로도 다스릴 수 없

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행 (12)



범이사 주지

그대의 마음이 부처다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가 될 수 없다

마음을 증득해야
일체가 그림자뿐임을
자각해서 안심입명
할 수 있게 된다

마음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관계없이
늘 함께하고 있지만
그것을 한번 정확히 계합하여
체득하지 못하면
늘 대상에 집착하여
헛떡거리며 살게 된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가르침과 상관없이
나고 죽는 바 없이
인연 따라 흘러오고
흘러간다.



그림·박구원

다. 아무리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도, 내 마음이 뒤집어질 때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는다. 마음을 증득해야, 일체가 그림자뿐임을 자각해서 안심입명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곧바로 이 뜻을 깨닫는다면, 곧 3승의 모든 지위를 단박에 뛰어넘어서 본래 부처인 것이니, 결코 수행을 빌려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니 부처니 하는 것은 허공에 도장 찍듯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면 지위점자를 빌려와서 공부하는 어려움은 범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바로 도장 찍어서 확인한 그 모습을 쓰는 것이지, 다른 무엇에 의지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 본래 있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수행을 빌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조사서래의는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이다.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 ‘허공에 도장 찍는 소식’이라고 힌트를 주는 것이다.

배후가 말했다.
“만약 그렇다면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무슨 법을 말씀하셨습니까?”

부처님이 출현하셨는데, 실로 출현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불교를 믿게 하는 차원에서는 2천 5백여 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왔다고 하지만, 불법의 입장에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오고 간 적이 없는 것이다. 석존께서 무수수 나무 아래 태어나셔서 일곱 걸음을 걸은 뒤 한 손은 허공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고 말씀하셨는데, 운문스님은 거기

에 대고 “그때 만일 내가 봤더라면 일방 타살해서 사나운 개한테 던져주겠다.” 하고 호언장담했던 것이다. 이러한 말들의 낙체가 어디 있는지 세심하게 살필 줄 알아야 한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세간에 나오셔서 오로지 한 마음의 법만을 말씀하셨다.”

불법은 오직 일심법(一心法)만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에게 그것을 은밀히 부촉하셨다. 이 일심법(一心法)은 허공을 다하고 온 법계에 두루하기 때문에, 이름 하여 모든 부처라고 한다. 이 법을 논하더라도, 어찌 그대가 언어에서 그것을 헤득할 수 있었겠는가. 또한 한 움직임이나 하나의 대상에서 결코 그것을 볼 수 없는 것이니, 오로지 묵묵히 계합할 따름이다.

마음이라는 것은 과거·현재·미래에 관계없이 늘 함께 하고 있지만, 그것을 한 번 정확히 계합하여 체득하지 못하면 늘 대상에 집착하여 헛떡거리며 살게 된다. 다행히 석존께서 대가를 성취하여 어려움에서 벗어나 지혜로움으로 거듭났고, 그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중생세계에 일러주셔서 그 가르침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렇지만 사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이라는 것은 가르침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고 죽는 바 없이 인연 따라 흘러오고 흘러간다. 이 우주법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그랬고,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그렇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든, 천지가 창조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러할 뿐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이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모든 죄악업을 이제 모두 참회합니다

(천수경)

왜 ‘조상탕’을 할까?

잘못을 했으면, 참회를 하고 용서를 비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 모두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친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 그것이 잘 안 된다.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참회를 하고 용서를 비는 것은 대단히,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이 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를 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부정(否定)한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일에 다름 아니다.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의 ‘자기’를 한번 죽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다시 비로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그것이 참회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죽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수행이 깊고 투철함을 말하는 것으로 평가해서 좋을 것이다. 에고(ego), 아만, 자부심, 프라이드(pride)가 높은 사람들은 더욱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참회를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 대신에 ‘조상탕’을 하게 된다. 돌아가신 조상탕을 하든, 살아있는 부모 탕을 하든... 남의 탕을 하면 된다. 이것은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린다.

그런 반면에 참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순간에 자기를 한번 죽이는 일이 된다. 이렇게 자기를 죽임으로써, 우리는 무아(無我)가 된다. 무아의 존재가 부처님 아닌가. 그러므로 참회를 통해서,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행자라면 언제나 스스로의 잘못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겸허함과 용기, 그리고 하심(下心)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과연 나 스스로는 수행자일까, 아닌가? 그것을 판가름하는 하나의 기준이 바로 이것이다. ‘조상탕’을 하는가, 아닌가?

공(公)과 사(私)

다시 물어보자. 왜 우리는 자기부정을 해야 하는가? 왜 그것이 부처가 되는 길이라 는 말일까? 이 물음의 배경에는, 불교라는 종교가 갖는 커다란 성격 하나가 놓여있다. 자기를 버리고 따라야 할 공도(公道)가 있다. 이런 전제를 불교는 하고 있다. 그 공적인 길을, 불교에서는 법(dharma, dhamma)이라 한다. 이 법은 중생들인 우리만이 따라야 할 것은 아니다. 부처님마저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

《아함경》에서, 부처님은 이 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던가. “이 진리는 여래가 이 세상에 출현하든지 안 하든지 무관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 출현 전에도 그 진리는 존재하였고, 부처님이 안 계시더라도 그 진리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가령 불교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춘다 해도, 그 진리는 존재한다.

그런 법을 부처님께서는 밝게 아시고 밝게 깨치시고서 부처님이 되신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다. 그 진리에 비추어 본다면, 무엇이 잘못된



그림·박구원

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야말로 시비가 분명하신 분이다. 너무나 시비가 분명하기에 시비가 없다.

그런 반면에 우리는, 나 밖에 존재하는 공도를 알지 못하기에 시비가 많다. 시비에 밝지 못하고서 시비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너의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다.

내가 가끔 ‘불교는 자비의 가르침이 아니다. 무자비의 가르침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무자비는 이 공도의 무자비성을 말하는 것이다. 공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교를 자비의 가르침인 줄로만 안다.

그래서 자비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공도를 사도(私道)로 만들려 한다. 참회를 통해서 부정해야 할 자기를, 공도 속에 섞으려 한다. 그것은 법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다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자기를 부정하는 일, 참회가 그만큼 어려워져서 생기는 일들이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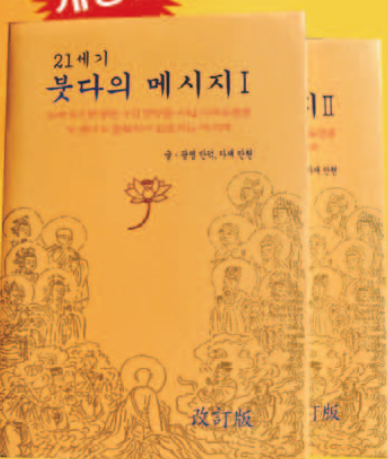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8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32상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추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산불교 현지사의 화제의 신간!!



영산불교 금강반야바라밀경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김수, 서연 이대성 저, 704쪽, 가격 20,000

금강경오가해와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관점의 금강경해설서. 오가해를 비롯해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들이 주로 선(禪)의 입장에서 해설해왔던 일물승의 입장에서 금강경을 해설한 비종유한 저술. 특히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영문을 함께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신불교 영산불교를 말한다

전대기 김중섭 이대성 외 저, 339쪽, 가격 15,000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 2》를 읽은 불가지성인들이 《붓다의 메시지》가 불자들에게 던지는 의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천착하고 있는 저자들의 비평서이다. 저자들은 금세기의 불후의 고전이 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부연설명하거나 요약정리하여 이 저서가 던지는 불교사적 의미를 천명하고 있다. 한 저자는 《붓다의 메시지》를 읽고 참탄과 경이를 금하지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교를 이른 대성취자의 순수하고 청정한 범음의 성서이고 일체법을 통달한 최고의 종교철학서이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자재만현 큰스님 김수, 범정 김중섭 저, 715쪽, 가격 25,000

통상적인 비교종교학의 관점을 넘어서 붓다의 가르침에 입각해 21세기 인류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에 대해서 장단점을 해부한 종교비평서.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우주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인류의 근본적 의문에 대해 최고의 비밀을 파헤치고, 또한 달리아라미의 《한 원자 속의 우주》에서 제기한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담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